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로 완성
만족 복음화
세계 선교
아웃 사랑

주간 충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
마태복음 4:17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6 충현교회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원 편집: 양계웅

2006년 제2차 청지기 문헌

베드로의 회개
(눅 22:61, 62)

일 시 : 2006. 6. 16. (금)

저녁 7시 30분 ~ 9시 30분

장 소 : 충현교회 본당

강 사 : 김 성 관 위임목사

개어, 이 말씀을 들으라! (금요일집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거로 하는 하나님의 단일성

성경 전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이 한 분만이 홀로 서 계시며, 어떠한 것도 가까이 할 수 없는 크신 분이시며, 지혜와 선하심과 위엄이 있고 완전하시며 모든 것의 영광이 되신다(출 3:14). 그러므로 하나님과 어떠한 피조물을 비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지만 그들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 이들도 존재해 왔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변하는 존재들이며 또 변하는 요소들을 지니고 있다. 지금까지 존재해 온 것이 현재와 다를 수도 있고 후에는 또 전혀 다른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변화되고 다른 것에 의존되어 있는 이 본질은 오늘날과 내일의 모습이 다르고 또 어느 날에는 없게져 버릴 것이다. 이러한 변화되는 본질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과 감히 비교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은 어떠한 권력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시간에 의해 손상을 받지도 않으신다. 사고나 사건들에 의해 영향을 받아 변화되지도 않으신다. 참으로 이 하나님은 정확하게 “스스로 있는 자”로 표현할 수 있으며 영원한 왕이시다(사 44:6). 열방이 그 앞에서는 아무런 것도 아니다(사 40:17).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하심, 그의 행사, 영광, 경배에 관한 말씀을 찾아 볼 수가 있다(야 19:17; 계 15:4; 딤후 1:17, 6:15; 시 72:18; 왕상 8:39; 사 44:24, 43:11; 롬 11:36). 이러한 내용의 말씀 구절이 하나님의 유일성, 통일성을 가르쳐 준다. 이는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과 비교해서 월등하고 훌륭하고 현명하고 선하다는 것이 아니다. 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임을 나타내 주고 있다. 어두움 속에서 도움을 주는 다른 많은 빛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은 강한 햇빛 안에서는 빛을 발하지 못하고 만다. “스스로 계시는 자” 홀로 계시며 가까이 할 수 없는 위엄과 영광에 가하시니 이 하나님에게 다른 어떤 것을 감히 비교할 수 있던 말인가? 다른 모든 것들은 대를 거듭 못한 것이다.

이 땅 위에 2000년 전에 우리 인간처럼 뼈와 살을 입으신 한 사람이 살았다. 사도 바울은 이분을 향하여 그의 삶을 고백하였다(빌 1:21; 롬 14:8; 고후 5:15; 골 1:16). 사도 요한도 고백한 이 말씀은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이었다(요 8:58, 11:25; 계 21:6, 22:3).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역을 찬양한다(계 1:5-6). 어린양을 향해 경배 드리고 있다(계 5:12). 우리들이 단지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인간에 불과하다면 왜냐하면 이 예수에 대해 이렇게 엄청난 고백을 하는 것을 막고 배척하고 내어 쫓아야 함이 마땅할 것이다. 왜냐하면 오직 한분인시 하나님께만 드러져야 할 찬양과 경배를 이 예수 그리스도 가로채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임에 틀림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증거 하는 것과 또 그의 사도들이 주장하는 그의 신성이 바로 그리스도가 여호와와 일치되어 있는 한분인시 하나님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분을 영접하고 삼위일체의 하나님인 것을 기쁨으로 경외하며 섬겨야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직접적으로 증거하는 말씀을 살펴 볼 때 우리는 더 강하게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눅 24:47).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매일 매순간 해야 할 것은 회개이며, 전해야 할 것도 회개의 복음입니다. 따라서 이번 제2차 청지기 문헌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에서 나타난 베드로(눅 22:57)와 같은 우리가 사도행전의 베드로(행 2:38)로 바뀔 수 있는 성령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눅 22:61, 62). 평계대지 마십시오. 다음 기회를 기다리자 마십시오. 은혜를 사모하는 온전한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4일), 성령 강림 주일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온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도를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의 권능으로 땅 끝까지 나아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힘납나 다. 성령께서 우리의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

하나님의 단일성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전지 전능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가 되는지를 말씀으로 찾아보자(빌 3:21).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린다. 그분은 우리를 영광의 몸으로 변화케 하실 분이시다. 또한 그리스도는 모든 교회, 모든 자들의 마음을 살피고 아시는 분이시다(계 2:23). 하나님의 영원성, 불변성과 예수님의 신성을 비교해 보자(히 1:10-12; 계 22:13). 하나님의 권능성과 예수님의 말씀과 비교해 보자(마 18:20; 요 1:3). 하나님의 특이한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을 언급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존하고 계시며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이다(히 1:3).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요 6:40, 44, 54). 죄를 사하시는 권세(골 3:13). 영혼을 구원하심(살전 1:10; 마 1:21). 세상을 심판하시는 일(고후 5:10). 참 신, 참 하나님이신 것이다(요일 5:20). 이 말씀 구절 하나 하나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임을 강하게 증거하고 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시며 가까이 할 수 없는 존귀와 영광과 권세를 가지신 그분으로부터는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다. 오히려 세상에 태어난 하나의 피조물에게 이 모든 영광과 존귀가 주어지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고 갖고 있는 이 특성이 피조물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만약 예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 아주 가까운 두 번째의 신과 같은 존재가 된다면 이 예수야말로 스스로 홀로 계시고 전지전능하시며 무수부재하신 하나님께 최강의 대적이 되고 마는 것이다.

하나님의 단일성과 그리스도의 신성을 구절로 비교하며 종합적으로 살펴보자(아래 성경 참조). 이 구절들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임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 만약 이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제2의 신이 됨을 증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동시에 인간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종으로 오셨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한 부분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의 믿음과 판단에서 하나님인 최종적인 기준으로 받아들이면, 한 인간의 몸에도 두 속성 곧 신성과 인성이 함께 있음을 믿을 수가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중보자의 역할도 믿을 수가 있다. 하나님의 단일성은 인간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다. 또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와 같은 뼈와 살을 입으시고 오셨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나 성경은 직· 간접적으로 그리스도의 신성과 영광을 우리에게 증거 해 주고 있다. 계속해서 성경이 증거 해 주는 영생의 구원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라는 것도 증거 해 준다.

*하나님의 단일성

(출 3:14, 사 44:6, 계 15:4, 마 19:17, 딤후 1:17, 딤후 6:15-16, 사 44:24, 왕상 8:39, 사 45:22, 신 32:39, 시 73:25, 잠 23:25, 시 76:7, 렘 17:5, 롬 11:36, 골 3:14)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요 8:58, 계 1:7, 계 3:7, 엡 3:18-19, 골 2:3, 히 1:3, 계 22:13, 요 1:3, 계 2:23, 마 1:21, 계 1:18, 요 11:25, 빌 1:21, 요 17:24, 고후 12:2, 시 21:2, 마 3:12, 계 6:16, 딤후 1:12, 골 1:18, 딤후 5:25-27, 계 22:1, 계 1:5-6)

HELL

⁽¹¹⁾And I saw a great white throne and Him who sat upon it, from whose presence earth and heaven fled away, and no place was found for them. ... ⁽¹⁴⁾And death and Hades were thrown into the lake of fire.

This is the second death, the lake of fire. ⁽¹⁵⁾And if anyone's name was not found written in the book of life, he was thrown into the lake of fire. (Revelation 20:11-15)

Hell is not a popular topic. Most preachers avoid the subject because today's people do not want to hear about it. The people during Isaiah's time also did not want to hear about it; they told him, "You must not prophesy to us what is right, speak to us pleasant words, and prophesy illusion" (Is. 30:10). Nowadays, Christians do not want to discuss the important issues concerning their future, the real heaven and hell, but rather spend time talking about blessings and success. It is a sad state of affairs. God's people told Isaiah, "Get out of the way, turn aside from the path, let us hear no more about the Holy One of Israel" (Is. 30:11). The church cannot ignore or pretend that the biblical teachings of hell do not exist.

During Jesus' ministry, He talked about hell a lot, more than any other of God's servants did. He was not concerned whether this truth made people uncomfortable or unhappy or whether they believed it or not. He said, "If your right eye makes you stumble, tear it out and throw it from you; for it is better for you to lose one of the parts of your body, than for your whole body to be thrown into hell. If your right hand makes you stumble, cut it off and throw it from you; for it is better for you to lose one of the parts of your body, than for your whole body to go into hell" (Mt. 5:29&30). This is some serious, terrible, and crazy language. The point is that sin is so dangerous because it leads to hell. In my sixty plus years of life, I have never heard of anyone tearing out their eye or cutting off their hand to prevent their whole bodies from going to hell. No one really thinks about this, even though they do bad things with their eyes and hands. I do not know how much you think about hell, but today I want you to look carefully at Revelation 20:11-15. Jesus showed John this future event, which is why we call it a revelation. He had him write it down, so that we know what is really going to happen to us. At the end of the world, when He returns, "These will go away into eternal punishment, but the righteous into eternal life" (Mt. 25:46). What is hell?

Hell is a place of complete darkness. In the parable about the talents, Jesus said of the slave who did not manage his master's money well, "Throw out the worthless slave into the outer darkness; in that place there will be weeping and gnashing of teeth" (Mt. 25:30). Concerning the Pharisees and scribes, Jesus said, "You serpents, you brood of vipers, how will you escape the sentence of hell" (Mt. 23:33)? Hell is eternal night. There is no praising, only weeping and gnashing of teeth. There is no pleasure, no joy, no hope, no kindness, no laughing, and no forgiveness. There is no death, and there is no God. There is nothing but darkness. Can you imagine such an abominable place? Are you listening or are you closing your ears?

Hell is a place prepared for the cursed. Jesus will say to the many who did not really love Him, "Depart from Me, accursed one, into the eternal fire which has been prepared for the devil and his angels" (Mt. 25:41). Can you avoid it? This is the place prepared by God for the normal person, the person with pride and honor. If you go there, the Bible is clear that you will never receive God's love. Your mouth will call out to Him, but His ears will not be able to hear you because you enjoyed the things God hated. You were drunk with worldliness. Indeed, you proclaimed to believe in God, but inside you did all the things God hated. Even though Jesus died for you, opened up the eternal way for you, and gave you His best love, you chose to remain an alcoholic of earthly things. In hell, there is nothing but hate. It is the home for the accursed: complainers, hypocrites, and fools!

Hell is an eternal place. It has no end. Revelation 14:11 says, "And the

smoke of their torment goes up forever and ever; they have no rest day and night, those who worship the beast and his image, and whoever receives the mark of his name." The beast, which signifies the things of this world, like money, pride, selfishness, and sin, will torment the wicked forever. Billions of souls will cry out as they "drink of the wine of the wrath of God, which is mixed in full strength in the cup of His anger; and he will be tormented with fire and brimstone in the presence of the holy angels and in the presence of the Lamb" (Rev. 14:10). Are you scared? Do you believe it? Do you still want to be drunk with earthly things? No matter how many years pass away, hell will continue to be punishment after punishment after punishment. It will always be a place of eternal suffering. The rich man cried out, "Father Abraham, have mercy on me, and send Lazarus so that he may dip the tip of his finger in water and cool off my tongue, for I am in agony in this flame" (Lk. 16:24). There is no water, no help, or comfort in hell. It is an eternal place of damnation with no chance of change.

Hell is a place for failures, even Christian failures. After betraying Jesus, Judas "felt remorse and returned the thirty pieces of silver to the chief priests and elders, saying, 'I have sinned by betraying innocent blood.'" But they said, "What is that to us? See to that yourself!" And he threw the pieces of silver into the temple sanctuary and departed; and he went away and hanged himself" (Mt. 27:3-5). Judas saw the lepers healed, the cripples walk, and the blind made to see. Yes, he saw Jesus walk on water and raise the dead. He confessed that Jesus was the Christ, the Son of God. The Lord gave him all kinds of wonderful heavenly opportunities, even joining the Last Supper, taking the blessing of the bread and cup. Judas did not take care of his faults. He was a failure, "Judas turned aside to go to his own place" (Acts. 1:25). Peter testified, "For he was counted among us and received his share in this ministry" (Acts. 1:17). Judas did ministry work, but Jesus said of him, "It would have been good for that man if he had not been born" (Mt. 26:24).

My dear friend, heaven and hell are real. They are actual eternal places. Death and life are real, and law and grace are real. Suffering and recovery are real. Satan and Jesus Christ are real. There is eternal punishment and forgiveness. There is sadness and happiness. There is weeping and praising. There is a time of judgment, but now is the only time in which you can escape. Hear now the words of Mark 9:43-50: "If your hand causes you to stumble, cut it off; it is better for you to enter life crippled, than, having your two hands, to go into hell, into the unquenchable fire, where their worm does not die, and the fire is not quenched. If your foot causes you to stumble, cut it off; it is better for you to enter life lame, than, having your two feet, to be cast into hell, where their worm does not die, and the fire is not quenched. If your eye causes you to stumble, throw it out; it is better for you to enter the kingdom of God with one eye, than, having two eyes, to be cast into hell,

where their worm does not die, and the fire is not quenched. For everyone will be salted with fire. Salt is good; but if the salt becomes unsalty, with what will you make it salty again? Have salt in yourselves, and be at peace with one another." I am so thankful that we can hear the voice of God concerning hell. He loves us so much that He sacrificed His only Son to make heaven available for us. The time is now for God's children to choose the pathway to heaven. I want you to take God's grace by faith, only faith, and deny yourself, taking your cross and following Jesus the narrow way, the way of the cross. Jesus is the only One who can lead you to eternal heaven. I hope that is your eternal home. Amen. 

다움 주일 설교

지 욕



김성원 목사

¹⁰⁰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 ¹⁰¹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¹⁰²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려라 (요한계시록 20:11~15)

지욕을 기억하라

지욕은 많이 다루는 주제 아닙니다.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현대인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주제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사가야 살던 시대의 사람들 역시 이것에 대해 듣고 싶어하지 않았습다. 그들은 이사자에게 말했습다.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사 30:10).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미래와 연관되어 있는 중요한 문제, 곧 실제로 존재하는 천국과 지욕에 관해 논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축복과 성공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이것은 참으로 슬픈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사에게 말했습다. "너희는 정로를 버려도 칠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사 30:11). 이제 교회는 더 이상 지욕에 관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무시하거나, 마치 지욕이 실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지욕에 관해 말씀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 하나님의 다른 어떤 선지자들보다 지욕에 관해 더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불편해 하든지 말든지, 불쾌하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혹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전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목케 하거든 빼어 내 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도 온 몸이 지욕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여서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목케 하거든 찍어 내 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도 온 몸이 지욕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리라"(마 5:29,30). 이 말씀은 심각하면서도 두려운, 어떻게 보면 제 정신이 아닌 사람이 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이 말씀의 요지는 죄는 매우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우리를 지욕으로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육신 평생 살면서 지욕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 자신의 눈을 찢거나 손을 자른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이것을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계시화하고 부릅니다. 주님은 앞으로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것인지를 알리기 위해 요한을 통해 이것을 기록하셨습니다. 세상 끝날 곧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마 25:46)는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욕은 어떤 곳입니까?

칠축 같은 어둠이 있는 곳

지욕은 칠축 같이 어두운 곳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은 주인의 돈을 잘 관리하지 못한 종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 무리한 종을 마갈 아무논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굴 굴며 이를 깊이 있으리라"(마 25:30). 죄는 대마귀와 서기관들에 관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뱀들이 독사의 새끼들이 너희가 어떻게 지욕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마 23:33)? 지욕은 영원토록 밤만 계속됩니다. 그곳에는 찬소가 없고, 오직 슬픔과 울며 가는 소리만 있을 뿐입니다. 그곳이 기쁨, 즐거움, 화평, 친절, 웃음, 용서 없습니다. 그곳은 죽음도 없고, 하나님도 없습니다. 오직 어둠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곳이 얼마나 소름끼치는 곳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귀를 열고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귀를 막고 있습니까?

저주받은 자들을 위한 곳

지욕은 저주받은 자들을 위해 예비된 곳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이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마 25:41). 여러분은 그것을 피할 수 있습니까? 지욕은 하나님께서 보신 사람, 곧 세상적인 자존심과 명예만 있는 사람들을 위해 예비해 두신 곳입니다. 만약 그곳에 가게 되면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지욕에 간 사람들이 주님께 아무런 부끄러움도 주님은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들을 즐거워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들에 취해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을 행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시고 영원한 길을 열어

놓으시며 최고의 사랑을 주셨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국 세상적인 것들에 취해 사는 길을 중독자로 남아 있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욕에는 오직 죽음이 있을 뿐입니다. 그곳은 저주받은 자들, 곧 불행하는 자, 위선자, 어리석은 자들이 가야 할 집입니다!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

지욕은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의 고통은 끝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4:11은 말합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니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이름을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 세상의 것 곧 돈, 자존심, 이기심, 죄를 상징하는 이 짐승은 악한 자들을 영원히 고통스럽게 할 것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율부라질 될 것입니다. 곧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로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때 말입니다(계 14:10). 이것이 두려우십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믿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세상적인 것들에 취해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흘러도 지욕은 끝없는 형벌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곳에는 영원한 고통만이 있을 것입니다. 부자는 소리질렀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하여 나를 구하옵소서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못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눅 16:24). 지욕에는 물도, 도움도, 위로도 없습니다. 그곳은 변화의 기회가 없는 영원히 저주받은 곳입니다.

실책자들을 위한 곳

지욕은 실책자들을 위한 곳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한 후에 "스스로 뒤우쳐 그는 삼십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갔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죄값이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 매어 죽은지라"(마 27:3-5). 유다는 문둥병자가 나음을 받고, 절름발이가 걷고,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도 했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놀라운 천국의 기뻐들을 수 없이 주셨습니다. 심지어 마지막 만찬 때 떡과 잔에 참여하는 축복까지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책자였습니다. "유다는 이를 바라보고 그 게로로 갔나이다"(행 1:25). 베드로는 증거했습니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행 1:17). 유다는 사역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자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 계를 행하였으리라"(마 26:24).

심자가를 통해 열린 천국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과 지욕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곳은 정말로 영원한 곳입니다. 죽음과 삶, 율법과 은총, 고통과 회복 모두 실존합니다. 그리고 사단과 예수 그리스도도 실존합니다. 그곳에는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용서가 있습니다. 슬픔과 행복이 있습니다. 애증함과 찬양이 있습니다. 이제 심판의 때가 다가옵니다. 지금이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마가복음 9:43-50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은 것을 가리고 지욕 끼치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은 것을 가리고 지욕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은 것을 가리고 지욕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끼치지 아니하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조금 지듯 함을 받으리라 조금은 좋은 것이라 만일 조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채게 하리요 너희 속속 지욕을 두고 서로 화독하라 하시니라" 지욕에 대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매우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시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하시니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으로 가는 길을 선택할 시간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심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좇는 길, 심자가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천국이 여러분의 영원한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수요1부 예배 메시지

예수 우리 주 (롬 4:23~25)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감히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또한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체적인 사랑이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믿어야 한다(요 3:16). 이것을 진심으로 믿을 때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진다. 신자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다. 우리의 고백은 무엇인가?

예수 우리 주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셨다. 이것을 우리들은 이해할 수 없다. 오직 믿음으로 알뿐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천한 말구유에서 태어나셔야 했는가? 그 대답은 간단하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이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예수님과 우리는 관계를 맺어야 한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롬 4:25). 우리는 이 일에 중언이대(행 3:15).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그분과 함께 살게 해 주셨다(행 2:6). 이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 단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골 2:6). 신자들의 특권은 예수께서 주가 되셨다는 사실이다. 이 놀라운 진리 앞에 겸손하자.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예수를 찾지 말자. 세상 일로 인해서 근심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을 기뻐하자(골 5:23).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며 근본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시다(골 1:18).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주님의 것이 되어야 한다(골 1:24). 자신의 가정, 사업, 명예를 위해서 살지 말자. 대신에 우리의 참 구주이신 예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자.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계 5:12,13). 우리 삶의 방향은 분명하다. 오직 십자가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고전 11:26).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우리의 고백이 그리스도가 주가 되심을 강조한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될 때 우리의 고백은 그리스도에게 집중된다.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방법과 지위, 명예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십자가 앞에서 죽을 수 있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마 23:10). 우리는 먼저 죽는 것을 배워야 한다. 자신의 교만, 인격, 의를 완전히 죽여야 한다. 자신을 드러

내고 싶은 욕망 앞에서 철저한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한다. 자기 부인이 없을 때 우리의 종말은 엘리제사장처럼 비참하게 될 것이다. 사두마를 통해서 엘리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회개하지 않았다. 그는 “선한 소견대로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삼상 3:18). 이 말은 겉으로 볼 때 신앙이 담긴 말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교만으로 가득한 말이다. 우리도 소위 “하나님의 뜻”을 내세우며 외식적인 신앙에 빠졌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자신의 지식, 경험에 근거한 하나님의 뜻만을 내세우고 있다. 말뿐인 신앙이 우리를 병들게 한다. 우리는 진심으로 회개해야 한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되심을 고백해야 한다. 모든 자신의 모든 소유를 잃어버렸지만 오히려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찬송하고 있다(눅 1:21). “제”라는 질문이 없다. 그저 참 구주이신 주님을 향한 순종과 믿음이었다. 이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영원한 통치자이다(히 7:3). 예수 우리 주!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되심을 매순간 믿음으로 고백하자.

가장 아름다운 명칭이다 예수 우리 주! 이것은 가장 아름다운 명칭이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될 때 나의 이름은 사라지게 된다. 자기를 부인하게 된다.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신자들이 인해서 기뻐하실 하나님을 보라! 예수님만이 참 진리이며, 인생의 유일한 대안이 되신다. 그래서 다윗은 “주는 나의 주시오니!”라고 고백하였다(시 16:2).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향해 나의 주라고 고백하였다(요 20:13,18).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도 고백하였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요 20:28).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를 아는 지식으로 인해서 진실로 기뻐하였다(빌 3:8).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께서 나의 주가 되셨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이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주님께 경배하자(계 3:14,15). 우리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지 말고 매 순간 예수님의 주되심을 믿고 그리스도를 전하자(막 16:20). 예수 나의 주는 가장 아름다운 명칭이다.

주님을 믿는 우리의 고백은 무엇인가? “예수 우리 주!” 이보다 더 아름다운 명칭이 없을만큼 진실로 믿는다면 오직 그리스도의 주되심만 매순간 믿음으로 고백하자. 성령님만을 의지하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진리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전 12:3). 예수님은 우리의 힘, 친구, 기쁨, 소망이 되신 다(찬 93장). 그러므로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영원하고 온종일 우리를 인도하실 예수님만 바라는 믿음의 자녀가 되길 바란다. 아멘

십자가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유아부



유성태 (장로, 유아부장)

“예수께서 가만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찬송가 300장). 아직 발음도 정확하지 않은 소리로 작은 입술을 힘껏 벌려서 성령님과 함께 율동하며 찬양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큰 은혜를 받습니다. 특별히 이들의 모습을 보시는 주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저를 비롯한 모든 교사들은 더욱 기뻐하며 예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많은 기쁨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 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벧전 1:3).

유아부는 4~5세의 유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매 주일 11시에 제1교육관 220에서 220여 명의 유아들과 50여 분의 교사들이 구국의 은총을 베푸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유아부의 2006년 표어는 “회개하라!”입니다. ‘정말 아무 것도 모르는 유아들이 무슨 회개냐?’라고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유아들만큼 자기의 죄에 대해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들은 가장 솔직하게 자신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으며 때로는 구슬같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어린이와 같이 되라’고 하셨는지 깨닫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며 순종하겠다고 다짐하며 교회를 나서는 유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복음의 능력을 실감하게 됩니다.

특히 유아부 총동원 전도주일은 모든 유아들과 부모님들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시간

이었습니다. 총동원 전도주일을 준비하는 동안 유치부와 연합으로 분당 앞 열계단 앞에서 찬양을 하며 전도를 나눠 드리고 성도님들께 유아부와 유치부에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셔서 복음으로 아이들을 기뻐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아들은 찬양을 금방 외우지 못하기 때문에 한 주일에 한 곡씩 가르쳐 주고 부모님들께 연락을 드리면 유아들은 교회에서 배운 찬양을 한 주간 내내 쉬지 않고 부르며 찬양을 익힙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유아들은 찬양을 외우고 가사를 깊이 인식하게 됩니다. 또한 그 모습이 찬양할 때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고, 그 속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교사들은 또한 매시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우리만 알면 안 되고 친구들에게도 전해 주어야 한다고 하자 그 말대로 순종하여 친구들을 데리고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유아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전도는 나 자신과 상관없이 필요하며 또한 전도가 가능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믿지 않는 유아들에게도 구원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부 교사들은 더 간절히 기도하며 하니 되어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매주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면 유아부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야 할 많은 유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온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어린 영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참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위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리라”(골 1:20).

기쁘고 행복한 시간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세요." 전도지를 나눠 주고 같이 읽으며 열정 기도를 한 뒤 "아멘" 하며 그 전도지를 받아든 자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임하길 기도하였다. 우리가 꼭 다시 그 전도지를 읽고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하면 그들은 그러겠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하교 시간에 만난 초등학교생들은 초라한 겉모습과는 달리 눈빛만큼은 초롱초롱 빛났다. 순수하게 복음을 받고 전도지를 받고 좋아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이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이 먼 곳, 산 속까지 보내셨구나' 생각하니 뜨거운 오후의 태양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땀을 뻘뻘 흘리며 한 영혼이라도 놓칠새라 이리 저리 뛰며 복음을 전했지만 그제 기쁘고 행복하기만 했다. 동네도 잘 보이지 않는 산 속이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인도하셨다. 학교, 시장, 병원, 투게가 열려 인근 마을 주민들이 다 모여 잔치가 벌어진 곳으로 인도하셨다. 투게판에는 술판까지 벌어져 있었지만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며 구원을 베푸시길 기도했다. 전도하는 우리 뒤를 졸졸 따라다니던 아이들을 불러모아 찬양과 율동을 가르쳤다. 짧은 언어와 외운 전도 언어만으로도 그들과 대화할 수 있었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참 즐거웠다. 전도지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도 한국말로 "그래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며 억지로 전도지를 읽게 하면 어이없어 하며 받아들였다. 그래도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며 웃어 주면 따라 웃으며 전도지를 읽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주님, 아무짝에 쓸모없는 나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기뻐할 수 있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복음을 듣고 전도지를 받아든 그곳 영혼들이 복음을 깨닫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길 기도합니다.

박경애(집사, 18교구)

교구 선교 소감문

성령께서 만나게 하신 영혼들!

△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신 말씀 따라 한 영혼 구원이라는 작은 믿음으로 나아갔다. 주님은 은혜를 주셔서 현장에서 많은 영혼을 만나게 하셨다. 한 마다 나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 복음만 전하였다.

(이화정 집사)

△ 눈이 먼 할머니를 만났는데 많은 하소연을 하셨다. 할머니들 수 없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였다. 어린 아이들을 만나 찬양을 하였다. 모여 있는 청년들도 만났다. 그들이 흐트러진 자세를 바로 하고 복음을 청종하며 아멘으로 기도할 때 어눌한 언어로 전했지만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사를 체험할 수 있었다.

(김소연 집사)

△ 날씨는 더웠지만 시시때때로 단비를 내리 드리는 대지를 사해 주었다. 말씨 통하지 않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다. 그런데 이 열심이나의 욕심으로 바뀌었다. "내가 열심히"의 교만을 회개하고 오직 성령님만을 의지했다. (신명주 집사)

△ 전도할 때마다 기쁨이 넘쳤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할 곳이 너무도 많았다. 밖으로 돌고 나가 만나는 사람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다. (최선자 권사)

△ 언어가 잘 통하지 않아 손짓, 몸짓, 찬양 등으로 전도했다. 처음에는 경계를 하다가도 예수 그리

스도의 복음을 듣고 기뻐하며 얼굴이 환해지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었다.

(최은희 권사)

△ 이제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 역사하심을 간구했다. 정말 순수하고 맑은 그곳 영혼들을 만날때, 주님은 죄인 중의 죄인인 나의 실재를 먼저 보게 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류홍희 집사)

△ 전도할 곳이 아주 많았고, 전도가 매우 잘 되었다. 그때 사단은 우리를 방해하려 했다. 하지만 성령께서 매일 매일 강세하셨고 인도하셨다. 우리의 욕심을 잡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전도했다. (조선희 집사)

△ 사역 첫날은 많이 위축되어 있었다. 그곳이 전도하기가 어렵다는 말을 들었기에 축호 전도를 하며 조원 3명 중 1명은 시간 체크 및 주위 상황을 살폈다. 집집마다 잠을 섞기는 집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매우 잘 받아들였다. (권원선 집사, 총무)

△ 성령님만을 의지하며 준비했다. 선교지에 도착해서 3일 1조로 전도를 했다. 현지 경찰의 눈은 피해 숙소에서 2시간 떨어진 시골로 이동 후 차로 30분 간격으로 숙소로 들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

(구원선 안수집사, 팀장)

민음의 순종

많이 낙후된 이곳 사람들의 생활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이들이 참 구원이신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러기에 나는 더욱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였다. 가난 때문이 아니라 복음을 모르는 영혼들이 불쌍해서 쉬지 않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다. 농촌, 시장, 마을 곳곳 어느 곳으로 가든지 성령님은 나의 입술을 열어 주셨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게 하셨다.

한 시골에서 시작 장래가 있는 여인을 만났다. 그녀에게 복음을 전할까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역시 성령님은 나의 입술을 열게 하였고, 그녀의 마음도 활짝 열어 주셨다. 그녀는 처음부터 복음을 잘 받아들였고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비록 그녀가 앞을 보지 못하지만 천국을 소망하였고, 이 세상이 아닌 예수님을 바라보셨노라고 고백했다.

나는 선교지에서 이 모든 일이 우리보다 앞서 준비하신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했음을 깨달았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었다. 아니 실제로 내가 한 일도 전혀 없다. 단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였을 뿐이고, 주님께서 모든 역사를 이루셨다. "정말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애숙(집사, 10교구)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기 간	팀	팀 장
6월 5(월) - 6월 13(일)(화)	2교구 6지역	이정태
6월 5(월) - 6월 13(일)(화)	9교구 4지역	김명성
6월 5(월) - 6월 13(일)(화)	8교구 4지역	김종홍
6월 5(월) - 6월 13(일)(화)	9교구 3지역	김종구
6월 5(월) - 6월 15(일)(목)	14교구 4지역	이근호
6월 7(수) - 6월 15(일)(목)	소년부(1)	홍성욱
6월 8(목) - 6월 16(일)(금)	18교구 1지역	강태영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기 간	팀	팀 장
5월 30(화) - 6월 7(일)(수)	17교구 1지역	김연근
5월 31(수) - 6월 8(일)(목)	7교구 6지역	조종덕
5월 31(수) - 6월 9(일)(금)	4교구 12지역	류기명
5월 31(수) - 6월 9(일)(금)	18교구 6지역	이용현
5월 31(수) - 6월 9(일)(금)	18교구 8지역	유상태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기 간	팀	팀 장
5월 22(일)(월) - 5월 31(일)(수)	14교구 1지역	김영환
5월 23(일)(화) - 5월 31(일)(수)	3교구 7지역	김국권
5월 24(일)(수) - 6월 2(일)(금)	1교구 9지역	이승계

한 영혼을 향한 새로운 출발, 총동원 전도 집회를 마치며

죄인인 나를!



5월 20일은 대학부 지체들이 기도해오던 총동원 전도 집회의 날이었다. 그 날을 위해 대학부에서 몇 주 전부터 기도회를 시작하며 5월 20일 전도 집회에서 일어날 회화의 역사와 새 친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나 역시 집회에 꼭 데려오고 싶은 친구가 있어 팀에서 함께 나누며 기도하고 친구들에게 교회와 주님에 대해 소개도 하며 그 날이 오길 기다렸다. 전도 집회 당일 특별히 새 지체들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평소보다 이른 12시

에 소그룹의 행사로 집회가 시작되었다. 모두를 기도하며 준비한 공연과 행사가 모두 은혜 가운데 진행되었다. 드디어 말씀을 듣는 시간, 목사님께서는 '죄인 괴수의 회개'란 제목으로

로 디모데전서 1장 12-17절 말씀을 전해 주셨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것을 주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 때 예수님께서 회개함을 주신다는 말씀이었다.

바울에게 역사하신 주님, 또 오래 참음으로 우리를 사람으로 기다리시는 예수님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말씀을 들으며 여러 생각이 들었다. 집회에 참석한 새 친구들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바울처럼 분명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 자신을 돌이켜 볼 수 있었다. 바울과 같이 예수께서 나를 만나 주셨는데 '나는 그와 다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며 주님께 다시 회개하였다. 그러나 내가 꼭 데려오고 싶었던 친구는 아쉽게 집회에 올 수 없었다. 그

런지만 그 친구가 분명 주께 돌아오게 될 것을 나는 확신한다. 바울을 변화시킨 신 예수님은 동일한 사람으로 친구를 기다리고 계시며 죄인인 나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다.

최지혜(대학부)

주님의 생각만!

총동원 전도주일을 맞아 여러 가지 준비를 했다. 평일에도 모이면서 많은 노력을 했다. 새 친구들이 많이 올 것 같아서 한껏 기분이 들떠 있었다. 그런데 새 친구들이 나올 때 솔직히 많이 실망했다. '열 네명! 내가 고작 열 네명의 새 친구를 위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20여명쯤은 올 줄 알았는데... 무의식중에 나는 내가 노력한 보상을 새 친구들의 '수'에서 얻으려고 하고 있었다. 새 친구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친구들이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마음과 믿음이 소중한 것이었다. 처음에는 나의 노력에 비해서 친구들이 많이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주님께 서운했지만 지금은 아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주님은 단 한 명의 친구를 보내주시길 수도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열 네명의 친구라도 보내주시 주님께 감사한다. 그 친구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할 것이다. 또한 나의 교만 그리고 경솔이 생각한 그 마음을 회개한다.

박연경(중동부)

주님의 계획대로!

총동원 전도 집회!

처음에는 그저 '하나의 행사로 지나가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없지 않았습니다. 한편 '앞서서 일하시는 분들이 고생하셨네'라는 비판자적인 생각과 동시에 이런 나 자신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었습다. 전도가 나의 말, 설득의 논리와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지만 때때로 내가 쏟아 부은 조그만 수고와 조금만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다. 이런 저에게 주님은 항상 십자가를 떠올리게 하였고, 십자가의 사람이 나를 향한 참사랑임을 잊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도 집회를 준비하면서 더욱 기도하게 하였고, 영혼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계획이 아닌 주님의 계획대로 전도 집회를 준비하게 만드셨습니다. 결국 주님은 인간적으로 기대하지 않았던 영혼들까지 보내 주셨습니다. 이제 많은 영혼들이 교회로 인도되었으니 이들을 놓치지 않고, 육토에 떨어진 씨앗이 키워지듯이 섬기며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로 인도함이 전도의 끝이 아니라 새끼가 자라서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믿음이 자라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며 신앙의 아름다운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시며 선한 시 방법대로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향한 믿음과 존송을 위해서 다시 한 번 십자가 앞에서 나의 모습을 비추어 봅니다.

최희경(집사, 8교구)

교회주변 전도를 통해 주시는 은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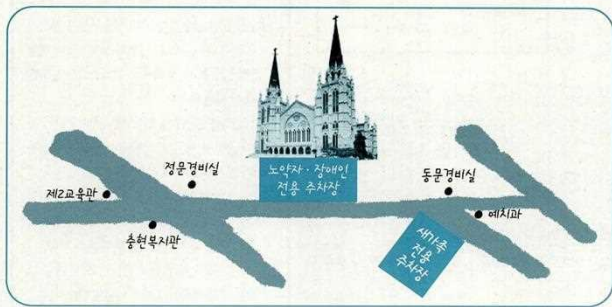
"주님! 오늘 주님이 준비하신 사람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한 간구로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목양지로 길을 나선다. 항상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지만 복음을 거절하는 영혼들 앞에서 실망이 될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저 불쌍한 영혼들은 내 전도지를 거절하며 또 따지듯 받은 사람은 조금 가다가 전도지를 길에 버리고 간다. 그럴 때마다 나는 어찌할 수 없어 기도할 뿐이다. "주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소. 주님께서 택한 자녀들의 지극 열렬을 면케 하시라 십자가의 참혹한 형통에서 값은 지불하고 죄 사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한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였다. 그녀는 믿지 않는다는 솔직한 고백을 하였지만, 나는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다.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으니 간절함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 들이라고 강력하게 권면하였다. 매번 아파트의 문을 집집마다 두드리지만 거절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며 나는 변함없이 '기도하고 전도하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한다. 난 두려움과 떨림으로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고 열매가 맺힐 때까지 아니 주님이 재림하실 그 때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만을 전할 것이다.

양승남(권사, 13교구)

복음을 위한 작은 믿음의 실천, 주차질서!

새가족을 위한 전용 주차 공간·예치과 앞 주차장 / 노약자 및 장애인들을 위한 전용 주차 공간·본당 앞 주차장



▲ 새가족 전용 주차장



▲ 노약자·장애인 전용 주차장

십자가의 복음을 사모하는 성도님들의 발걸음은 매 예배 시 교회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특히 차량을 가지고 오신 성도님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단 교회와 인접한 지역의 분들은 가급적 대중교통(지하철 2호선, 시내버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차량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교회에서 정한 주차 질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부분의 성도님들의 자발적인 협조로 주차 질서가 많이 확립되었습니다. 더욱더 복음을 위한 믿음의 실천이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차량을 가지고 오시는 성도님들은 반드시 차량 안내부의 인도에 따라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새가족 전용 주차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장소는 바로 예치과 앞의 주차장입니다. 또한, 본당 앞 주차장을 노약자와 장애우를 위한 전용 주차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특히 영아 및 유아들과 함께 오는 부모님들도 이 주차 공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종직자들은 제2교목관 3·4층 주차장에 주차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분들은 안내에 따라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은 은총의 자녀되며 이 일에 협력하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작은 믿음의 실천인 주차질서에 모든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너희가 법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고후 2:9).

내 영혼이 주를 찬양



찬 176장 영화로신 주 성령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이기에 자고 깨면 만 리를 이 동할 때나 찬양은 나에서 떠나지 않는다. 때때로 기도가 집 중되지 않을 때도 찬송을 통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고백시킨다. 그러면 주님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며 내 속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 주심을 느낀다. **“영화로 신주 성령 나의 맘에 비추사 어둠 몰아내고 밝게하여 줍소서”** 성령의 역사는 나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에서 해방시켜 주신다. **“전능하신 주 성령 성령하게 하시고 나의 맘을 괴롭힘 죄를 말해 줍소서”** 이처럼 찬송을 드릴 때마다 성령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기쁨을 내려 주셨다. **“회개하신 주 성령 슬픈 맘에 오셔서 온갖 과를 없애고 기쁨만을 줍소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은혜는 나를 움직이는 삶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나는 주께할 수 없는 눈물을 쏟아내곤 한다. 이와 같은 찬송을 통한 성령의 큰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향해 달려가는 나의 모습에 나는 죄인중에 괴수입니다"라고 사도 바울처럼 고백한다. 이같은 고백을 통해 나는 눈물로 회개하며 주님께 찬송한다. **“진령하신 주 성령 나의 맘에 계시니 망령된 일 고치고 홀로 주만 함소서”** 살아계신 주님!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입술의 찬양이 늘 살아 있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힘입어 십자가를 전하는 복음의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김예정(집사, 팔복회가 찬양대)

♡ 새 · 가 · 족 · 을 · 환 · 영 · 압 · 니 · 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700	김리연	19	대학부	전혜민(14)	1730	홍태수	6	청년1부	이진규(9)	1760	김정현	19	청년1부	고은실(14)	1790	이수	19	외선부	신교선(18)
1701	홍순민	15	청년2부	김용현(16)	1731	김일봉	6	청년1부	이진규(9)	1761	이민정	3	대학부		1791	신비나	19	외선부	곽영자(8)
1702	변정환	19	고등부	이미예(3)	1732	김희숙	19	대학부	이태현(12)	1762	김정숙	14	청년1부	최영민(1)	1792	서향	19	외선부	오은성(8)
1703	박법기	6	청년3부	안치원(1)	1733	김진희	1	청년2부	이계연(1)	1763	이병민	8	청년1부	신은희(1)	1793	홍라	19	외선부	변연식(8)
1704	왕영은	6	청년2부	안치원(1)	1734	홍영	19	청년3부	문준호(2)	1764	조종국	19	청년3부	정영석(8)	1794	이재현	13	청년1부	이진규(9)
1705	최정순	10	청년2부	최희숙(10)	1735	최보훈	19	대학부	홍하나(2)	1765	한종호	19	대학부	이병호(1)	1795	최희희	19	대학부	이진현(7)
1706	정은순	16	청년1부	박성열(11)	1736	최재만	19	청년2부	김진순(1)	1766	이진진	19	고등부	박오현(14)	1796	김길재	7	예배대	박정현(19)
1707	이영민	19	청년3부	박성열(11)	1737	최소산	19	고등부	김기영(13)	1767	김정현	19	고등부	박오현(14)	1797	김민서	19	대학부	유지영(8)
1708	임정숙	9	소망부	홍영운(9)	1738	김규진	19	대학부	이태현(1)	1768	박서호	19	외선부	김정현(1)	1798	전보희	19	대학부	박재선(17)
1709	신민경	19	청년3부	홍준호(2)	1739	하은진	7	소망부	정선옥(7)	1769	박하나	19	외선부	조옥희(18)	1799	이영준	19	대학부	정진성(9)
1710	연태현	19	청년3부	박오현(13)	1740	김재선	9	청년2부	구자영(1)	1770	임지영	19	청년1부		1800	이기태	19	고등부	박정현(8)
1711	백호성	19	청년3부	류한준(16)	1741	김종국	9	청년2부	이수진(1)	1771	최정현	13	청년2부	이혜아(1)	1801	김진규	9	청년3부	이진규(9)
1712	이재영	19	대학부	안복남(8)	1742	김정성	3	청년1부	전은희(14)	1772	박재순	19	청년1부	김진규(1)	1802	김 달	19	대학부	이보람(16)
1713	김원준	4	청년2부	이영애(3)	1743	김종희	17	청년2부	박준희(12)	1773	김희숙	19	청년2부	김순재(12)	1803	오은진	19	청년3부	서영진(15)
1714	이은주	19	대학부	김희영(3)	1744	송주영	19	청년1부	정성민(1)	1774	박찬자	4	청년3부	김정현(1)	1804	오은아	19	고등부	유지영(8)
1715	문영민	19	청년2부	지아연(11)	1745	김종현	19	청년1부	최진규(1)	1775	안영미	19	청년1부	이영준(8)	1805	류유진	19	대학부	박정현(8)
1716	최희희	19	대학부	정재석(1)	1746	박재선	13	청년2부	박영민(1)	1776	김정현	9	청년3부	이민정(17)	1806	조희숙	19	대학부	김지미(7)
1717	구동현	2	청년1부	박현숙(8)	1747	전민	19	외선부	안영숙(12)	1777	이희영	19	고등부	원진영(1)	1807	심성연	19	대학부	심혜림(19)
1718	유진영	19	청년2부	박은혜(12)	1748	신희라	19	외선부	이영숙(13)	1778	정은진	9	고등부	박재준(1)	1808	송기현	19	대학부	한은진(18)
1719	홍준태	19	대학부	조한규(4)	1749	김정현	19	청년1부	박선진(8)	1779	안연우	19	고등부	박정현(8)	1809	송유진	19	대학부	문대선(8)
1720	류한준	19	고등부	신정현(15)	1750	이기태	19	외선부	박정현(8)	1780	김정숙	1	청년2부	김승규(1)	1810	조영숙	19	대학부	최정현(12)
1721	백희진	19	청년1부	전복희(18)	1751	노로트	19	외선부		1781	이태영	1	청년1부	김승규(1)	1811	박복남	8	청년2부	전은희(14)
1722	임은진	19	대학부		1752	김은진	5	소망부	공진규(5)	1782	윤은진	5	소망부	공진규(5)	1812	김세영	19	대학부	주재희(16)
1723	이민정	19	대학부	안윤정(19)	1753	이미라	19	외선부	김정자(2)	1783	구정현	13	대학부	한정희(14)	1813	김성연	19	대학부	김호성(19)
1724	정현희	6	청년2부	송한현(8)	1754	박준근	19	외선부	김정현(1)	1784	전정희	13	청년2부	김정현(17)	1814	박성진	1	청년2부	류정희(1)
1725	신민경	19	청년1부	이미주(4)	1755	이민지	19	외선부	유미영(1)	1785	황성민	19	고등부	박지현(14)	1815	오지현	19	대학부	박정현(19)
1726	박정현	19	대학부	이영애(19)	1756	미영숙	19	외선부	유미영(1)	1786	고기영	9	청년1부	문준희(1)	1816	이윤진	19	대학부	권미영(19)
1727	전은진	19	청년1부	박선진(8)	1757	전은진	19	청년1부	박선진(8)	1787	이민정	19	청년1부	박선진(8)	1817	유은주	19	대학부	홍성애(15)
1728	조영민	19	대학부	조정현(19)	1758	송재진	13	청년2부	김정현(7)	1788	라비	19	외선부		1818	오승민	19	청년1부	최은진(12)
1729	추종훈	13	청년1부	이진규(9)	1759	박정현	19	대학부	박정현(8)	1789	박서호	19	외선부	김정현(1)					

※ 종헌교회의 한 구역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5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

